

여야, 간호법 막판 절충 시도... 입장차는 여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 폐기 앞뒤 재협상 공감대 국힘 '업무 규정 아닌 처우 개선안' 기존과 차이 없어 평행선

여야가 사실상 폐기를 앞두고 있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 가능성이 커진 상태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저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을 이렇게 재의요구한 상태에

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 직역 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간호법 재논의를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간호법 재투표에서 민주당이 전

원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114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완전히 '없던 일'로 하기도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해보자는 데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할 때는 수정 의결을 할 수 없기에 기존 법안은 그대로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간호법 내용을 두고 여전히 여야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는 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전인 지

난 12일에도 간호법 관련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기존 정부-여당 주장과 차이가 없는 내용이라며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당시 제안한 중재안은 법안에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 아닌 처우 개선 내용을 담자는 취지로 ▲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준치 등 4개 조항이 골자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제안에 일단 당내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당장 재투표 방침을 천명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라 협상 여지가 있는 것아

나는 시각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안이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5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파국을 피하려는 공감대는 있지만 과연 절충안이 만들어질 것인지 미지수"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큰 여당이 좀 더 양보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평균 3.2억 증가” 23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관석 “민주 전대 돈봉투 전달한적 없다”

검찰 소환 조사... “무리한 총선용 정치 수사 결백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윤관석 의원은 23일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 수사에 맞서 결백과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일방적으로 짜여진 검찰의 정치 수사에 맞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

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넘게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저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여러 차례 명백하게 밝혀왔다”며 “맥락과 정황을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편지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검찰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검찰의 야당 탄압을 기획 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에 맞서 당당히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 ‘욕설 문자 폭탄’ 강성 당원 첫 제명

체포안 이탈표 사태...이원욱 의원 상대 ‘욕설문자’도 명부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 표현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낸 강성 당원에 제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욕설 문자를 보낸 당원 A씨에 대해 최근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자폭탄 등을 이유로 당원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 화합을 해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 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

지, 제명 등인데 제명은 이 중 최고 수위 징계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A씨가 문자폭탄을 지속되자, 전혜숙 의원은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운 비명계 의원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폭력적·모욕적이고, 아주 과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며 “제명 케이스는 처음 일 텐데,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언어폭력 등의 행위를 벌여야 그런 행위를 안 한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거기에 맡기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수박 농민들은 이번에 완전 박멸시켜야 한다’ ‘수박 농민들이 당선될 바엔 차라리 쓰레기 국민의힘에 의원직 주는 게 훨씬 효과적’ 등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문자를 공개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에 사용하는 멸칭 표현이다.

이 의원은 “이 정도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오시는 분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며 “이재명 대표님, 이걸 보시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 없으신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인물에 대해서도 당 윤리감찰단에 당원명부 확인 등 조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당정 “농번기 외국인력 역대 최대 지원”

상반기 3만8000명...하반기 계절근로자 조기 배정 등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노동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번기 농촌 인력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농번기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상반기에만 3만8천명에 달한다. 하반기 지원 인원은 법무부가 이달 말까지 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공형 계절 근로 중개 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고용부 협업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마늘·양파 수확 철을 맞아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일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하반기 계절 근로자를 조기에 배정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도 조속히 추진한다.

봄철 이상 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말~4월 초 이상 저온과 서리 발생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규모는 이달 20일 현재 약 4만2천ha(헥타르·1ha=1만㎡)로 집계됐다.

당정은 관련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재해 복구비를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가 경영 안전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발굴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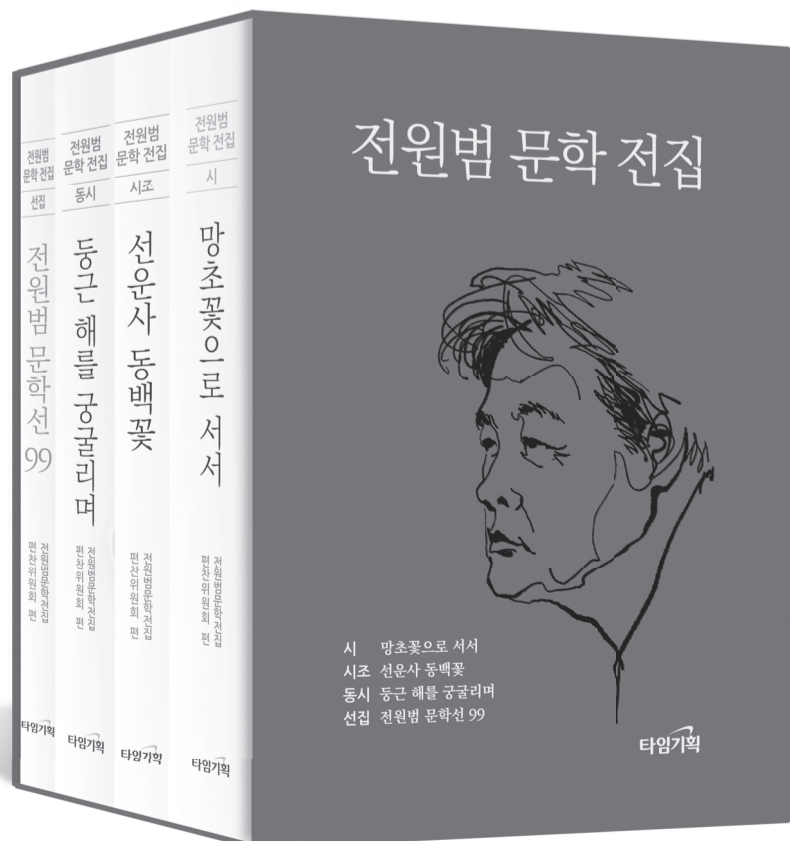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피해 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시행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복구비가 6월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최근 생산량 증가가 가격이 내려간 한우 수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한우 수출을 위해서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을 늘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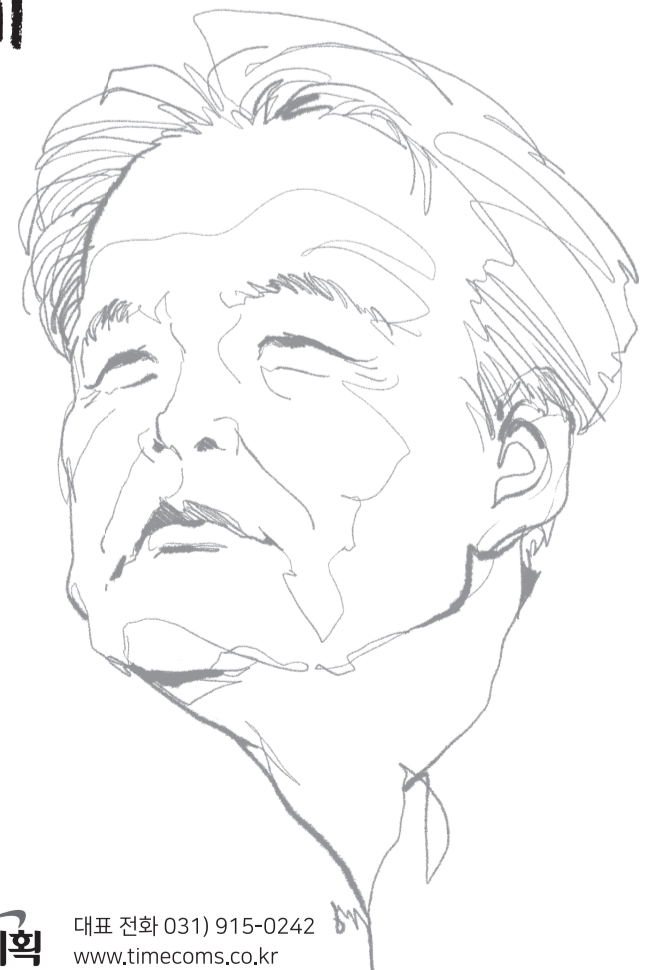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